

# 좋은 책의 바탕은 '자신감'

푸른숲 김혜경 대표

불황으로 황폐했던 올해 출판계에서 푸른숲은 이름처럼 한점 오아시스였다. 30여종 정도의 책이 거의 성공작이어서 책이 나올 때마다 각종 매체의 이목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량도 뒤떨어지



**"반쯤된 책을 폐지공장에 보내던 날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한결음씩 쓰레기가 되지 않는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요."**

자와 편집자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논문투에 익숙하던 필자들에게서 '친절하고 부드러운 문체'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아주 즐거웠다. 독자 중심의 사고는 표지디자인에도 적용됐다. 쉬운 책이 아님에

지 않아 얼마전 출판인으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반쯤된 책을 폐지공장으로 보내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한결음씩, 쓰레기가 되지 않는 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요."

김혜경 대표(45)는 우선 기획의 내실을 다졌다. 기획팀을 분야별로 나눠 아이템 선정이나 필자 선택 등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자회사 '푸른역사'의 출발은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역사서는 이제 통사보다 단층 촬영하듯 인물·시대·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나라》, 《사도세자의 고백》 등 푸른역사의 책은 학계나 독자 모두에게 합격점을 얻은 보기도문 역사책이 됐다. 필

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은 돋보이는 표지디자인 덕을 봤다.

"편집실에 작은 전시대를 마련해두고 표본 책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탈리아 기행》도 대여섯권을 가계본해 본 끝에 내놓은 것이지요."

당연히 푸른숲의 편집실은 토론이 끊이지 않는다. 이른바 '풀(pool)로 던지는 회의', 아무리 작은 생각도 풀 속에 모두 던져놓고 본다. 필요없는 것은 꺼내고, 중요한 것만 남긴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나온다.

"이제는 판매부수예측도 거의 맞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에 점점 다가가고 있는 셈이지요."

푸른숲은 이미 99년도 출간계획을 마쳤다. 무엇보다 자신감은 좋은 책을 출판하는 바탕이기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

# 독자와의 공약수를 찾아

'생각의나무' 박광성 대표

도매상 연쇄부도와 매출부진에 따라 출판사들의 폐업이 잇따랐는데도 신생출판사들의 약진은 눈부셨다. 창립 2~3년 안팎의 젊은 출판사들은 자기 색깔이 분명한 출판물로 독자를 파고 들었다. '생각



**"황폐한 시대에도 우리 독자들은 책을 읽습니다. 독자의 숨겨진 욕망을 존중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도 존중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상반기 생각의나무의 책들은 색깔로도 튀었다. 하드커버에 코팅한 겉표지를 씌웠는데, 흰색을 많이 섞은 단색을 주조로 하고 좀 화려하

의나무'는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출판사다. 《만남-은어와 만난 하루》, 《익숙한 것과의 결별》, 《바닷가 마지막 집》 등 상반기에 펴낸 책이 안타를 날렸다.

"절대적으로 최고인 책보다 독자들이 좋아하는 책 가운데 최고, 팔릴 가능성이 있는 책 가운데 최고를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대 대중에게 숨겨진 욕망을 파악해야 한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고급한 책들이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출판이 고급과 저급으로 양극화되는 대중문화 시대에 출판의 자리는, 출판인으로서의 욕심을 조금 접어두고 독자와의 교감을 통해 공약수를 찾아내는 데서 만들어 진다는 게 박광성 대표(46)의 생각이다.

"이렇게 황폐한 시대에도 우리 독자들은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들의 욕망을 어느 정

다 싶은 은색을 제목 등에 과감하게 썼다. 집단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깊이보다 화사함과 따뜻한 정서적 위안을 택한 것. 그리고 그것은 일단 성공했다.

"IMF시대의 책은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분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좋은 선생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척박한 삶을 생각하면 독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출판인에게는 힘이 되지요."

무모한 열정만으로 출판을 시작했다지만 욕심이 없을 수 없다. 올해 축적한 경험으로 내년에는 생각의나무를 소수 독자를 겨냥하는 고급 브랜드로 일궈가고, 대신 자회사 '룩스'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중지향적인 책을 펴낼 계획이다. 물론 출판의 품위는 결코 잃지 않겠다는 각오다. — 이현주 기자

## 현대 윤리에 관한 15가지 물음

가토 히사시케 지음/표재명·김일방·이승연 옮김/224면/7,000원

선의를 거짓말은 정당한가? 열 사람의 생명을 위해 한 사람을 죽인다면 옳은 일인가?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윤리적 난점들을 다양한 윤리학 이론에 따라 조명하고 있다. 윤리학의 기본 지식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윤리학 입문서이다.

## 장자의 예술 정신

한홍섭 지음/192면/6,500원

장자의 철학을 예술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경우는 드물다. 이 책은 장자의 예술적인 삶과 그의 미학 사상을 연결시켜 도가 사상 특유의 무위자연의 예술 정신을 재조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장자의 미학은 '예술적 자유'를 지향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 칸트: 칸트에서 헤겔까지 1

R. 크로너 지음/연효숙 옮김/336면/11,000원

크로너의 역저 《칸트에서 헤겔까지》에서 서론과 칸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장을 번역한 칸트 철학 해설서. 크로너는 독일 관념론사의 흐름 속에서 칸트의 비판 철학 전체 체계를 해설, 비판함으로써 칸트가 근대 형이상학을 새롭게 정립한 것으로 평가한다.

## 플라톤의 우주

G. 블래스투스 지음/이경지 옮김/224면/7,500원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의 전문가인 저자가 워싱턴 대학에서의 강좌를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 철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으로부터 전문 학자들까지 그리스 철학 일반과 플라톤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관점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